

일부 초등학교 결식학생의 영양실태

배은주, 이성국, 권진희, 윤희정.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A Study on the Nutritional status of Poor Students in an Elementary school

Eun Joo Bae, Sung Kook Lee, Kwoun Jin Hee, Youn Hee Jung. Graduated School of Public Healt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aegu. Korea

우리 나라의 경제위기이후 결식학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이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지지만 영양상태에 대한 연구는 없었기에 본 연구는 1개 초등학교 결식학생에 대해 학교 내에서 자연스럽게 영양실태파악을 하여 건강증진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대구광역시에 있는 초등학교학생 중 무상급식지원을 받는 결식학생 59명과 일반학생 71명을 선정하여 이들의 일반적인 특성, 식사의 빈도와 규칙성, 식습관 실태에 대해서 학교 영양사실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미비한 점은 가정협조와 구청 및 학교의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신체계측은 조사자가 직접 정밀체성분석기(inbody 3.0, Biospace)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영양소 섭취량은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여 토, 공휴일, 방학을 제외한 평일 하루의 섭취량을 조사자와 훈련된 조사원 1명이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결식학생과 일반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하면 결식학생은 편부, 편모, 양친이 없는 가정인 일반학생보다 유의하게 많았고, 학생가정의 자가소유와 소득이 유의하게 낮았다. 아침식사와 저녁식사의 섭취가 결식학생이 일반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p<0.01$) 식습관 평가결과 결식학생이 일반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p<0.05$). 식사제공시 식사량 조절정도($P<0.05$), 1일 3식중 결식빈도($p<0.01$), 육류섭취빈도($p<0.05$), 과일섭취빈도($p<0.01$), 유제품 섭취빈도($p<0.05$)가 결식학생이 일반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신체계측의 결과 키와 체중에 있어 전반적으로 결식학생이 일반학생에 낮은 수치를 보였고 체질량지수, 체지방량, 체지방률, 상완위 근육둘레, 상완위둘레는 결식학생이 일반학생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고 특히 체지방량, 체지방률, 상완위근육둘레에서 결식학생이 유의하게 낮았다($p<0.05$). 열량의 평균섭취량은 결식학생과 일반학생 모두에게서 권장량에 미달되었고 결식학생이 일반학생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단백질은 두 군 모두 권장량보다 높았으나 결식학생이 유의하게 낮았다($p<0.05$). 칼슘은 두 군 모두 권장량보다 낮았으며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5$) 인의 경우 권장량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비타민 A는 두 군, 남녀 모두 권장량보다 높았다. 티아민의 경우 일반학생은 권장량보다 높았으나 결식학생은 권장량에 미달되었고 특히 남학생의 경우 두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5$). 리보플라빈의 경우 두 군 모두 권장량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결식학생은 일반학생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05$). %RDA를 비교했을 때 결식학생과 일반학생간에 75%미만, 75%이상 100%이하, 100%초과로 분류한 것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은 섭취열량, 단백질, 나이아신이었다. 전체 영양소중에서 권장량의 75%미만인 학생수가 많은 것은 철이고 그 다음은 칼슘, 리보플라빈, 비타민 C, 티아민, 열량, 나이아신, 비타민 A, 단백질, 인의 순이었다. 현재의 경제지원외에도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사회각계 각층의 협력을 통해 결식학생의 실태파악과 영양중재활동(nutrition intervention)이 지속되어야 하겠다.